



2004년 하반기 소·돼지 유통 및 가격전망

축산유통연구소장 정규성

'03년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조치와 '04년 초의 조류독감 발생은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물론 축종별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료가격 대폭인상, 소·돼지 전염병 발생, 친환경 축산제도 강화 등 축산여건이 악화되는 흐름 속에 상반기를 넘어서며 “소거래 가격은 바닥을 찍었다.”, “돼지는 정점을 지났나?”라는 화두로 소·돼지 거래가격 흐름이 요약되고 있어 하반기의 소·돼지 유통시장 추이와 가격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03년말 미국산 수입쇠고기 중단 조치로 기대되던 국내산 쇠고기 소비활성화와 거래가격 상승은 연초 설 성수기를 전후한 원산지, 품종간 둔감판매보도 영향으로 신뢰도가 크게 저하, BSE로 커진 소비심리 위축세를 한층 더 증폭시킴에 따라 전반적인 쇠고기 소비가 감소되어 거래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생체 500kg기준 한우수소의 '03년말 거래가격 4,045천 원이 '04년 4월에는 3,179천원으로, 5월 하순에는 2,800천원 이하까지 크게 내렸다. 단기간의 큰 폭 하락과 하락세로 인한 사육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관련 당국의 주도 하에 소비자 거래가격의 큰 폭 인하, 대대적인 판촉행사 영향으로 6월 중순이후 반등세로 돌아선 소 값은 7월 상순에는 3,200천원대로 상승폭을 키우며 하반기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반등세의 배경에는 소비자 거래가격 인하와 판촉행사 이외에 누적되어오던 과제중 소들의 해소와 더불어 기 수입, 유통되어오던 미국산 쇠고기의 제고소진과 거래가격 상승도 크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케 하고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하반기 소 값은 추석 전까지는 조정양상을 수반하며 강보합세를 유지하려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나 단기간 상승폭이 클 경우는 소비저항이 예상되는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이후에도 출하물량이 수급가능선 상에서 조절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세기조가

전망되나 가장 큰 변수는 시중경기 추이와 미국산 쇠고기 교역여건 변화라고 본다.

년도 양돈관련 질병,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이 컸던 양돈업계는 '04년 들어서면서 다 축종의 질병 발생영향과 시중불경기 여파로 소비대체효과가 크게 일어나며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 생체 100kg기준 성돈의 거래가격이 25~26만원대를 오르내리며 하반기를 맞고 있다.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유행성 설사병(PED) 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출하량 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초강세를 보여오던 돈가는 박피기준 지육평균 경락가격이 4,000원대를 정점으로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예년과 다른 형태의 사이클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반기 시중경기 추이와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물량 흐름이 주요변수이나 전년도 질병, 장기 불황여파와 사료가격의 큰폭 상승, 양돈 주변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출하물량 증가세가 예년과 다를 것이 예상되어 하반기 돈가는 2/4분기의 성돈 100kg기준 거래가격 25~26만원대가 7~9월에 22~24만원대, 10~12월에는 년중 최대 소비감소기를 감안하더라도 19~23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